신자유주의, FTA, 그리고 새로운 농민운동 :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희 · 강수정

<Abstract>

Neoliberalism, FTA, and New Peasants Movement: Focusing on Mexican Case

En la era de la apertura económica y la globalización capital, la dicotomía ciudad-campo ya no tiene sentido sino que los campesinos deben considerar como consumidores de sus productos los pueblos del mundo además de los en su país. Por otro lado, los campesinos enfrentan el desafío de resolver la crisis actual de la agricultura y de insertar de forma exitosa en el mercado mundial para su sobrevivencia. El presente artículo examina la reforma agraria en México y sus efectos, en particular, a las organizaciones campesinas con el objeto de comprender la tendencia de la movilización actual de las organizaciones campesinas y las características de los movimientos campesinos. Con ello, este artículo explica que existe la tendencia de la desaparición de las comunidades del campo y de los campesinos como principal actor política y social, pese a que se han hecho esfuerzo por ellos, a la vez, para enfrentar el neoliberalismo y la integración económica y diversificar sus organizaciones más flexibles.

[Key Word: Neoliberalism / FTA / Mexico / Peasants Movement / Chiapas]

[주제어: 신자유주의 / 자유무역협정 / 멕시코 / 농민운동 / 치아파스]

I. 서론

개방화·세계화 시대 농촌은 도시와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농촌의 도시화·도시의 농촌화'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밀집된 공간이었다면, 농촌은 농축산업 생산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방화·세계화로 인해 기존의 도시·농촌 구분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농업생산도 도시 주민뿐 아니라 세계 주민을 소비자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Carton de Grammont 1995, 108-109). 이제 농업과 농민공동체의 생존은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으로의 재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2006년 한·미FTA 협상의 개시와 함께, 멕시코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사례가 한국 학계 및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12년 동안 시행된 NAFTA는 멕시코 수출, 외국인 투자, 고용창출, 소비자물가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 대미수출 의존도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부재, 非마길라도라 산업에서 고용상실, 불안정 고용의 증대, 실질임금 하락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도 나타났다. 특히, 멕시코 농업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증대, 미국의 높은 농업보조금 유지, 이에 따른 멕시코 농민의 빈곤 심화와 농촌인구의 국내의 도시로의 이주 확산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강경희 2006).

NA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NAFTA 발효 시점인 1994년 1월 1일 사빠띠스따민족해방군(EZLN: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의 치아빠스 봉기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멕시코 농업의 파탄을 우려하며 발생한 대표적인 농민운동 사례이다. 12년이 지난 2006년 7월 대통령선거에서 멕시코 농민단체들은 NAFTA의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NAFTA 이후 멕시코 농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요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제개방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농민이라는 점뿐 아니라, 지난 수십 년 간 농민들의 조직화와 농민단체들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본다. 따라서 멕시코 농민운동의 다양한 사례는 WTO, FTA에 대응하는 한국의 농민운동이 단순하고 전통적인 운동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대안 없는 부정의 운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기시켜볼 때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방에 대응해서 멕시코 농민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1982년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멕시코의 다양한 농민운동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2년은 멕시코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시장주도 경제모델로 전환된 해이고, NAFTA는 이러한 시장주도 경제모델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동안의 멕시코 농민운동 연구가 일부 지역과 일부 농민조직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 전역의 농민단체 활동을 좀 더 포괄적인 범위와 수준에서 검토하면서 새로운 농민운동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농민운동의 이론적 접근과 유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1982년까지 멕시코 농민운동의 흐름을 1940-1970년, 1970-1976년, 1976-1982년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1982년 이후 현재까지 멕시코 농민운동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신자유주의와 NAFTA에 따른 정부 농업정책의 변화의 그 영향을 언급하고 다음으로 농민조직들의 활동 및 농민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NAFTA에 따른 멕시코 농민운동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요약하고 향후 전망을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II. 농민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유형

농민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 있는 다른 사회계급들과 함께 자본주의의 성립을 위해 투쟁해왔으며 자본주의의 재생산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농민운동은 일반적으로 농촌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적 표출이라 할 수 있다(Rubio 1987, 16). 그러나 농민이라는 개념은 상이한 지형적 조건, 재배작물, 사회적 지위, 이해관계와 요구의 차이로 인해 분화된 다양한 하위부문들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따라서 농민운동이 하나의 목표로 결집되 기관 용이하지 않다(Serna 2004).

농민운동의 발생원인에 대한 기존의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정치경제

학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농민운동이 농민들의 의식과 감정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지 못한 가치 있는 대상을 스스로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거나, 전에는 획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다(신창운 1989, 22). 다시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농민들의 절대적 빈곤이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수준, 예컨대 도시 중산층이나 도시 하층의 생활여건과 비교함으로써 느끼는 격차의식 또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나타난다(홍동식 1988, 351). 상대적 박탈감은 자급자족 경제나 폐쇄적 촌락에서는 집합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개방경제와 상업농업의 확대 시기에는 집단적인 농민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추상적 용어로 인해 관찰하기 어렵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사회심리학적 접근과는 달리 비개인적이고 비주관적인 관점, 즉 집단 간의 제도화된 관계를 기반으로 농민운동을 분석한다(김영정 1988, 25-26). 이 접근은 다시 계급론적 설명과 구조적 설명으로 나뉘는데, 계급론적 설명은 농민운동의 일차적 원인이 특정 사회에서 대립하는 상이한 계급체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운동 주체는 빈농·소농·영세농·소작농 등이며, 운동 대상은 지주와 농업 자본가이다. 그러나 빈농이나 토지 없는 농민들은 자신의 생계를 지주 및 농업 자본가에게 의존해야 할 뿐 아니라 전통적이고 보수적 성향까지 갖고 있어서 농민운동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구조적 설명에 따르면, 농민운동은 근대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상업시장의 확대와 농촌사회의 수탈이 발생함에 따라 출현한다. 즉 세계자본주의 시장 세력의 농촌 침투, 상업농업 증대, 지주와 국가의 농민착취,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적 불안 등이 농민운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신창운 1989, 29). 이 경우 운동 주체는 중소농이며, 운동 대상은 지주·국가·국내외 독점자본이 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농민층의 대다수가 빈농임을 고려하지 않으며, 빈농과 중소농의 연합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FTA 시대 멕시코 농민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농민·지주·

농업자본가 간의 계급적 갈등,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침투에 따른 상업농업의 왜곡된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농민운동의 유형은 보상적 농민운동, 저항적 농민운동, 변혁적 농민운동, 개혁적 농민운동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신창운 1989). 첫째, ‘보상적 농민운동’의 운동 주체는 자작소작농·소작농으로 구성된 ‘빈농’이며, 운동 목적은 피해의 시정 및 원상복구이고, 요구조건은 경제 지향적이다. 이 농민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운동 여건이 성숙되더라도 소극적 저항에 치우치며 소규모의 일회적, 간헐적 운동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유형의 농민운동은 비공식적 농민운동(홍동식 1988, 350)의 특성이 있어서 폭력적이고 일시적인 집단행동을 추구하기도 한다.

둘째, ‘저항적 농민운동’은 운동 주체가 ‘중농’의 일부이며, 주로 도농간 격차에 대한 불만, 즉 상대적 박탈감이 운동의 원인이 된다. 중농은 생업유지라는 한계로 인해 준범투쟁·농민대회·공청회 등의 운동 방법을 선호한다. 이 유형은 소수 지도층을 정점으로 하여 일반 농민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위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준공식적 농민운동(홍동식 1988, 350)의 성격을 띤다. 또한 이 유형은 주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의 기획 주체와 추진 주체가 분리될 수 있고, 운동의 지속성은 보장될 수 없다.

셋째, ‘변혁적 농민운동’은 운동주체가 ‘빈농’이지만, 요구조건은 보상적 농민운동의 경제 지향적 성격을 넘어 정치 지향적 성격에까지 나아간다. 즉, 전체사회 질서의 재구성을 지향하는 농민운동이다. 이때 농민운동은 국내외 지배계급과 농민 간 계급갈등으로 발생한다는 계급론적 설명에 기반을 둔다. 변혁적 농민운동은 외세의존적인 국내 지배계급의 타도와 전복을 요구하기도 한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변혁적 농민운동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초과이익을 보장하려는 농산물 수입자유화와 복합영농정책 및 기업농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농정을 비판하면서 점차 증대되어왔다. 변혁적 농민운동은 국가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 농촌 및 농업에 대한 기본적 인식 전환, 피해보상을 넘어 구조적 모순의 근본적 극복 등을 요구하며, 폭력적 방법보다는 체계적 조직을 통한 성명서·토론회·시위 등의 방법을 선호한다.

넷째, ‘개혁적 농민운동’은 운동 주체가 ‘소농’을 포함한 ‘중농’이며, 요구조건은 대중화된 경제 지향적 성격과 정치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변혁적 농

민운동에 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보다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운동은 상업농업의 확대에 따른 가격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농민운동으로서 기존 사회경제질서를 인정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개혁적 농민운동은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자단체의 활성화 및 민주화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장교섭력 향상, 생산 조절 및 가격 지지, 품목별 수요 촉진, 농민의 이익대변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농업생산자단체는 체계적 조직으로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실질적 운동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 농민운동(홍동식 1988, 350)의 성격이 있다. 이 단체는 정책입안과정에 은밀히 압력을 행사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Ⅲ. 신자유주의 이전 멕시코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멕시코 농민운동은 ‘토지회복을 위한 투쟁(lucha por la recuperación de la tierra, 이하 토지를 위한 투쟁)’과 ‘생산과정 적응을 위한 투쟁(lucha por la apropiación del proceso productivo, 이하 생산을 위한 투쟁)’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토지를 위한 투쟁은 ‘보상적 농민운동’, ‘변혁적 농민운동’의 범주에서 각각 진행될 수 있으며, 멕시코 중남부 지역의 빈농들에 의해 주도된 단결력이 매우 높은 운동방식이다. 반면, 생산을 위한 투쟁은 ‘저항적 농민운동’, ‘개혁적 농민운동’의 범주에 속하며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농들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방식이다(Rubio 1987, 17-18).

1. 1940-1970년: 생산을 위한 투쟁 + 저항적 농민운동

멕시코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20년간 소위 ‘안정적 발전기(desarrollo estabilizador)’를 구가하며 연평균 6.1%의 높은 농업성장률을 기록했다.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농축산물 수출소득은 자본재 수입을 위한 외환을 마련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증대된 국내의 식량수요를 충족시켰다. ‘제3세계’ 국가들은 당시 멕시코 농업발전의 사례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송할 정도였다(Calva 1998, 11).

멕시코의 ‘안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입대체산업화 경제모델과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였다. 수입대체산업화는 1910-1917년 멕시코혁명의 제도화와 함께 고안되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후 30여년간 멕시코 경제는 고성장, 저인플레이, 환율안정의 동시 달성이라는 안정적 발전기를 맞게 되었다. 조합주의는 선택적 억압(represión selectiva), 정치적 포섭(inclusión), 비경쟁적 선거(cooptación) 등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정치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조합주의를 통해 멕시코 정치체제는 점진적, 실용적 권위주의(autoritarismo moderado y pragmático)를 유지하면서 민간정치기들에 의한 엘리트 순환과 행정부의 순조로운 이양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Prud’homme 1995, 10-15). 이에 힘입어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은 1980년대 말까지 어떠한 야당의 도전도 없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2000년까지 무려 71년간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패권적 유일정당인 제도혁명당은 멕시코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이 조합주의 구조 내에서 제도화된 모습인 동시에 권력에 접근하려는 엘리트와 사회집단이 경쟁하는 공간이었다. 농민세력은 전국농민연합(CNC: Confederación Nacional Campesina)¹⁾을 통해 제도혁명당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멕시코의 토지분배는 1930년대 까르테나스(Lázaro Cárdenas 1934-1940) 정부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 대토지소유자(latifundistas) 및 준노예적(peonaje) 농민착취는 철폐되고, 대신에 에히도(ejido)²⁾농민과 소농 위주의 ‘농민화’가 촉진되었다(Bartra 1975, 5). 그러나 지방의 경우 까르테나스의 토지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예컨대, 치아빠스에서는 대지주들과 지방토호세력인 까씨께(cacique)들이 1914-1920년 반혁명에 성공한 후, 1930년대 정부 농지개혁과 토지분배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방해하였다. 1940년 이후 대지

1) CNC는 1935년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멕시코에서 가장 큰 농민조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자체 자료에 의하면, 이 단체에는 3백만의 에히도농민, 농민, 소작인, 제조업자들이 소속되어 있다(Ramírez 2003).

2) 에히도는 멕시코 정부의 정치적 통제 및 생산 조직화의 수단이자 농민의 대표체제였다. 혁명 직후 에히도가 개인 토지소유제로의 전환기적 형태인가, 아니면 영구적인 집단소유체제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까르테나스 정부의 토지분배 실시 후 결국 농촌의 영구적 토지소유 형태가 되었다. 정부의 에히도 통제는 CNC를 비롯한 다양한 위계적 제도의 망이나 국가위원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De Janvry et.al. 1997, 1).

주와 까씨께에 의한 라칸돈 밀림지역의 재식민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디오농민들은 1960년대 말에 들어서야 토지를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다(Harvey 1992, 220).

1940-1970년 멕시코 농민운동의 유형은 1957-1959년과 1960년대 간헐적으로 보상적 농민운동 성격의 ‘토지를 위한 투쟁’³⁾을 전개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산을 위한 투쟁’이 지배적이었다(Moguel 1992, 15-16). 생산을 위한 투쟁은 다분히 준공식적이며 저항적인 농민운동의 성격에 치우쳤는데, 이에 참여한 농민조직들로는 멕시코노동자농민총연맹(UGOCM: Unión General de Obreros y Campesinos de México)⁴⁾, 전국소농연합(CNPP: Confederación Nacional de la Pequeña Propiedad)⁵⁾, 전국목축연합(CNG: Confederación Nacional Ganadera)⁶⁾ 등이 있었다.

2. 1970-1976년: 토지를 위한 투쟁 + 변혁적 농민운동

1970년대 초 정부는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발전계획들을 실시하였고, 농촌에 대한 투자 증대, 기술적·직업적 지원 확대, 신용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을 가능하게 했다. 토지개혁연방법도 에히도조합과 같은 2차 수준의 조직을

3) 이 당시 토지를 위한 투쟁을 주도했던 농민조직은 독립농민조합(CCI: Central Campesina Independiente)이다. 이 조합은 1963년 CNC로부터 분리되어 결성된 후, 공산주의 단체와 동맹을 맺고 바하칼리포르니아, 라라구나, 소노라, 모랄레스와 그 외 25개 주에서 활동했다. 지지정당은 제도혁명당이며 총 1백만의 농민, 일용직노동자, 소작농이 참여하였다(Ramírez 2003).

4) UGOCM은 1949년 롬바르도(Vicente Lombardo Toledano)에 의해 결성되었고, 미초아칸, 멕시코, 소노라,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시날로아, 나아릿, 베라크루스, 오아하카 등의 주에서 10만의 에히도농민이 참여하였다. 초기에는 민중사회당(PPS: Partido Popular Socialista)에 소속되었다가 후에 당시 정부여당인 제도혁명당을 지지했다(Ramírez 2003).

5) CNPP는 1945년에 창설된 민간부문의 조합으로서 2백만 정도의 소토지소유자가 참여하고 있다. 1970년에 제도혁명당에 가입했으며, 사탕수수·커피·밀·수수·옥수수·콩 등에서 전국에 10개 이상의 생산자조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농지의 30% 이상인 6천만 헥타르를 차지하는 농민조직이다(Ramírez 2003).

6) CNG는 1936년 목축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창설되었다. 66개 지역 목축업자 조합들로 구성되었고 90만의 목축업자들과 함께 1,700개의 지방연합들이 참여하였다(Ramírez 2003).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Harvey 1992, 220). 이 시기 멕시코 농민운동은 ‘토지를 위한 투쟁’의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모택동주의, 카스트로주의, 사회적 기독교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토지를 요구하고 민주적, 다원적인 새로운 조직화와 대표성을 획득하고자 했다(Serna 2004).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학생운동과 틀라텔롤코(Tlatelolco) 삼문화광장(Plaza de las Tres Culturas) 학살사건 이후, 멕시코의 변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당시 일부 학생운동 세력은 해방신학자인 사무엘(Samuel Ruiz) 주교가 이끄는 산끄리스토포발 교구에 들어가 교육자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구조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했고 치아빠스의 역사적 영웅이자 혁명가인 사빠따(Emiliano Zapata)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른 일군의 학생들은 농촌계급론 훈련을 받기 위해 치아빠스 밀립지대로 들어갔다. 이들은 에밀리아노사빠따농민조직(OCEZ: Organización Campesina Emiliano Zapata), 에밀리아노사빠따인디오농민연합(ANCIEZ: Asociación Campesina Indígena Emiliano Zapata) 등에서 활동했다. 이 학생들은 후에 사빠따스따민족해방군(EZLN)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Fábregas 2001, 75).

이러한 경향에 직면해 치아빠스 주지사는 사무엘 주교에게 인디오대회(Congreso Indígena)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chol, tzotzil, tzeltal, tojolabal의 4개 인디오 부족지역에서 토지법, 멕시코 역사, 생산기술 등에 대한 일련의 학습과정이 제공되었다. 이 대회는 다양한 공동체간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하였다. 1975-1976년에는 3개의 에히도연맹이 형성되었는데, 오꼬싱고의 에히도연맹(UE: Uniones de Ejidos)인 ‘Quiptic Ta Lecubtecel’, 라스마르가리따스의 ‘농민투쟁(Lucha Campesina)’와 ‘토지와 자유(Tierra y Libertad)’가 그것이었다(Harvey 1992, 221). 그 외 이 시기 결성된 농민조직들로는 멕시코농민연합(CAM: Confederación Agrarista Mexicana)⁷⁾, 농민의 횃불(AC: Antorcha Campesina)⁸⁾, 전국400촌운동(Movimiento Nacional de los 400

7) CAM은 1970년 독립농민연합(CCI)으로부터 분열되어 창설되었다. 제도혁명당을 지원하며, 우아스페카스(이달고와 베라크루스), 시날로아, 콜리마, 과나후아토 외 25개 주에서 10만 명의 소속원이 참여하고 있다(Ramírez 2003).

8) 농민의 횃불은 1975년 떼꼬마틀과 뿌에블라 민중봉기를 계기로 꼬르도바(Aguiles

Pueblo)⁹⁾ 등이 있었다. 또한 최초의 에히도조합인 지역사회이익연합(ARIC: Asociaciones Regionales de Interés Social)이 형성되었다(De Janvry et.al. 1997).

3. 1976-1982년: 생산을 위한 투쟁 + 개혁적 농민운동

1976년 이후 멕시코의 농민운동은 토지를 위한 투쟁에서 ‘생산을 위한 투쟁’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했다(Serna 2004). 1970-1976년 실시된 에체베리아식 민주주의(populismo echeverrista)는 토지를 위한 투쟁 방식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후 정부는 생산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동시에 주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토지를 위한 투쟁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농업전략이 변화됨에 따라 1979년 이후 농민운동은 커피유통문제에 대한 농민의 통일된 행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농촌공동체들은 멕시코커피협회(Inmecafé: Instituto Mexicano del Café)의 부패와 무능력 및 중개업자들(coyotes)의 전횡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곡물유통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자율적 지역조직의 결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Motozintla의 많은 농민공동체들은 chol와 tzeltal 등과 함께 1980년 9월 치아빠스에히도연맹과농민연대단체연맹(Unión de Uniones Ejidales y Grupos Campesinos Solidarios de Chiapas)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11개 읍(Ocosingo, Las Margaritas, Tila, Sabanilla, Huitiupán, Larrainzar, Yajalón, Comitán, Frontera, Comalapa, Motozintla)에 위치한 180개 공동체의 12,000 가족을 포함하였다. 여기에 치아빠스의 주요 에히도연맹들(Quiptic Ta Lecubtecel, Lucha Campesina, Tierra y Libertad)이 위 연맹에 가입했고 chol, tzotzil, tzeltal, Comalapa, Motozintla 지역의 농민단체들도 이에 가입하였다. 1980년 11월에 이 연맹은 Inmecafé와 새로운 협정을 조인하기에 이르렀고, 이

Córdova)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농민조직에는 27개 주 농촌과 도시의 소외지역에서 50만의 농민, 소작인, 학생,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제도혁명당을 지지했다(Ramírez 2003).

9) 400촌 전국운동은 1974년 플라스칼라에서 발생한 농민 탄압을 계기로 텔 앙헬(César del Ángel)의 주도 하에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좌파정당들을 지지했으나 나중에 CNC에 가입하고 제도혁명당을 지지했다(Ramírez 2003).

를 통해 융자, 저장, 유통 등과 관련해 중요한 약속들을 받아내었다.

1980년 말까지 지속된 이 연맹의 운동방식은 제도혁명당이나 전국농민연합(CNC)과는 별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웠기 때문에 주정부의 강한 탄압에 직면했다. 더욱이 연맹 조직이 확대되면서 1983년 초에는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다(Harvey 1992, 222-225).

IV. 신자유주의, NAFTA와 멕시코 농민운동

1. 신자유주의와 NAFTA의 농업정책

1982년 외채위기는 수입대체산업화의 역동성이 소진된 상태에서 제2차 석유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등이 결합되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은 농업생산자들에게 제공되는 자원, 시장에 대한 접근 환경, 정부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와 멕시코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Prud'homme 1995, 30). 식량공급자로서 농민의 기능은 멕시코가 시장개방을 추진한 후 미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이 확대되자 급격히 축소되었다. 꾸준한 농지개혁의 성과도 외국자본의 투자와 시장자유화로 물거품이 되었다. 급속한 탈농화(descampesinización)가 진전되어 극빈상태에 빠진 농민은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및 국제 이민이 급속히 증대되었다(Rubio 1998, 215).

또한 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하려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은 특정 부문, 특정 지역, 특정 생산자조직들에 대한 배제(exclusión)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농업체계는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지역에 따라 농업발전은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Appendini 1995, 32).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은 시장에서 배제된 빈농과 무토지농민들로부터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유능한 농민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멕시코혁명에 기인한 기업농과 농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시장경쟁력을 갖춘 상업농과 비효율적 농민이라는 새로운 대립으로 대체된 것이다. 즉, 혁명과 토지분배로부터 출현한 사회부문(sector social)과 민간부문(sector privado)라는 전통적 양분법 대신에 시장개방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부유한 농민(ricos)'과 시장으로부터 배제된 '빈곤한

농민'(pobres)이라는 새로운 양극화가 초래되었다(Carton de Grammont 1995, 160). 농민이데올로기(ideología agrarista)는 사라지고 농업이데올로기(ideología agrícola)만 남게 된 것이다(Prud'homme 1995, 28).

비교우위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농업개혁은 수출경작을 주로 하는 일부 농축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생산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옥수수과 콩 등 기본 곡물들은 소규모 토지와 소농들의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Prud'homme 1995, 24). 즉 극히 일부 농민들은 다양한 생산, 하이테크, 효율적 경영, 유통과정 지배, 산업부문과의 통합 등에 성공하였으나, 대다수 중소농민은 물론 일부 부농까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생산 양극화는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졌다(San Pedro 1996, 249).

신자유주의적 농업개혁의 결과 농업관련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도 신속히 이루어졌다. 용자부문의 농촌은행(BANRURAL), 유통부문의 전국민중생필품회사(CONASUPO: Compañía Nacional de Subsistencia Popular), 특화생산 지원부문의 Inmecafé 등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에히도농민과 소농의 생산기반을 흔들었다(Prud'homme 1995, 24). 특히, 1988-1993년 살리나스 정부는 멕시코혁명 이후 출현한 모든 공공기관들을 개혁하고 농업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결정적 계기는 NAFTA로서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계획은 무역협정을 통해 멕시코 정부의 새로운 제도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에히도법은 에히도의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농촌에 대한 직접지원프로그램인 PROCAMPO는 정부가 제공하던 보조금과 신용의 대부분을 민간은행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었다(Appendini 1995, 31-32). PROCAMPO는 1993년 말 농촌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고안되었지만, 곡물생산자들에 대한 헥타르당 보조금은 곡물의 실질가격 손실을 충당할 수 없는 미미한 액수였다(Calva 1998, 13).

2. 새로운 농민운동의 전개

1982년 이후 '생산을 위한 투쟁'이라는 새로운 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민조직은 전국지역농민자율조직연맹(UNORCA: Unión Nacional de Organizaciones

Regionales Campesinas Autónomas)¹⁰⁾이었다. UNORCA는 기존의 조합주의적 농민조직처럼 정부 발전전략의 수립과정에 적응하면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원적 망을 형성하는 자율적 농민연대 조직이었다. 의사결정과정은 협상을 통한 집단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Hernández, 1992: 55). UNORCA가 사회적 연합의 기능과 민주적 조직화의 성격을 보유함에 따라 정부는 이 연맹이 경제현대화 정책에 참여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Carton de Grammont 1995, 124).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1980년대 말 농촌 수익성 조건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등장하였다. 이 투쟁은 중농과 부농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93년 소노라에서 농촌생산자상설포럼(Foro Permanente de Productores del Campo), 치와와에서 농업부문사회조합조직연합(CCCOSSA: Coordinadora de Centrales Campesinas y Organizaciones Sociales del Sector Agrario), El Barzón 등 3개 농민조직이 결성되었다(Carton de Grammont 1995, 130-131). 이 가운데 El Barzón¹¹⁾은 농민 대표조직의 탈중심화 노력을 통해 에히도농민과 소농들을 단일한 지역조직에 통합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두 농민부문은 수익성 부족이라는 공동의 위기에 직면해있고 유사한 경제적·법적 상황을 공유하게 되었다. 생산자조직의 탈부문화(des-sectorialización) 경향은 농축산업·임업·유통업·산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다부문 조직인 El Barzón 결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CCCOSSA는 다부문과 다정당을 포함하는 지역적 연대의 좋은 사례로서 제도혁명당의 농민공동체연맹(Liga de Comunidades Agrarias)과 독립농민조합(CCI), 민주혁명당의 민주농민전선(Frente Democrático Campesino), 독립농

10) UNORCA는 1985년 23개 농민단체들이 생산, 경제발전, 유통에 집중하기 위해 창설한 연대조직이었다. 이 연맹에는 20만의 에히도농민, 인디오, 소농 등이 가입되어 있고, 그 영향력은 소노라, 시날로야, 두랑고, 사까페카스, 마하갈리포르니아, 치와와, 우아스페카스, 치아빠스, 과나후아토, 미초아칸, 게레로 주에 미쳤다. 지역에 따라서 민주혁명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제도혁명당, 노동자당(PT), 국민행동당(PAN: Partido Acción Nacional)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 연맹은 경제적 자치와 식량 자주권의 구호 하에 시장에 대한 농민의 단결을 추구하면서 수평적 조직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Ramírez 2003).

11) El Barzón은 1993년 할리스코에서 농촌과 도시의 파산한 채무자들의 시위에 기원을 두고 창설되었고, 12개 주 22,000명의 에히도농민과 소농이 소속되어 있다(Ramírez 2003).

업노동자농민조합(CIOAC: Central Independiente de Obreros Agrícolas y Campesinos)¹²⁾, 까르테나스농민조합(CCC), 국민행동당의 농촌생산자연합전선(Frente Unido de Productores del Campo), 그리고 PT의 민중방어위원회(Comité de Defensa Popular) 등이 소속되었다(Carton de Grammont 1995, 126-127).

1980년대 말 많은 멕시코 농민조직들은 전통적 운동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상설농민대회(CAP: Congreso Agrario Permanente)¹³⁾를 개최하였다. 1989년에 시작된 이 대회는 멕시코의 다양한 농민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대정부 대화채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개최되었다(Serna 2004).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심화되고 NAFTA가 발효된 후 정부는 더 이상 농민조직들과의 공식적 대화나 협상을 선호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농민의 피폐한 삶과 농민조직들의 약화로 인해 농민들의 협상력은 더욱 협소하게 되었다(Carton de Grammont 1995, 124-125). 또한 상설농민대회는 소속 농민조직들의 정체성과 투쟁이념이 다양함으로 해서 NAFTA 협상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1992년 '조합주의 농민조직 부문'과 '실질적 독립농민조직 부문'으로 분열되었다(Serna 2004). 조합주의 농민조직 부문은 CNC(전국농민연합)과 CCI(독립농민조합)에 의해 주도되었고 CAM, UNORCA, UNOCMJL(하신또로페스멕시코노동자농민총연맹: Unión General de Obreros y Campesinos de México Jacinto López)에 소속된 일부단체들이 지지했다. 실질적 독립농민조직 부문은 UNORCA, UGOCP(노동자·농민·민중 총연합)¹⁴⁾, CIOAC(독립

12) CIOAC는 일용직 노동자와 농업노동자 조직으로서 1975년 치아빠스, 뿌에블라, 게레로, 바하칼리포르니아, 치와와, 두랑고, 소노라 외 18개 주에서 10만 명의 인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치적 성향은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을 지지하지만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Ramírez 2003).

13) CAP에는 7개 조직(CIOAC, UNTA, Alcano, UNORCA, UGOCP, CCC 그리고 Movimiento de los 400 Pueblos)이 참여했다(Ramírez 2003).

14) 노동자·농민·민중 총연합(UGOCP: Unión General Obrera, Campesina y Popular)은 독립혁명농민조합(Central Campesina Revolucionaria Independiente)이 해체된 후 1986년에 몬테스(Margarito Montes Parra)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그 영향력은 빠팔로아판 유역(베라끄루스와 오아하카), 뿌에블라, 툄라스칼라, 소노라, 게레로, 모렐로스, 치아빠스, 시날로아, 캄페체 등에 이른다. 초기에는 토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농민당(Partido Campesino)의 추진세력 중 하나였으나, 살리나스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 지원을 수용하면서 투쟁 방식을 바꿨다(Ramírez 2003).

농업노동자농민조합), UNTA(전국농업노동자연맹)¹⁵⁾, CNPA(전국아얄라계획연맹) 등을 소속 집단으로 두고 있다(Serna 2004).

다른 한편 1988년 대통령선거 이후 중도좌파 야당인 PRD(민주혁명당)이 창당되자 이 정당을 지지하는 농민조직들도 결성되었다. 도시·농촌민주조직연합(CODUC: Coalición de Organizaciones Democráticas Urbanas y Campesinas)은 과나후아또, 베라크루스, 따바스코, 딸라스칼라, 캄빠체에 기반을 두며 2만의 에히도농민, 토지청구자, 소농, 공유지소유자, 소작인이 참여하며 PRD를 지지하였다. 까르테나스농민조합(CCC: Central Campesina Cardenista)은 1988년 UNTA(전국노동자연맹)에서 분리되어 결성되었다. 등록 인원은 멕시코주, 이달고, 베라크루스, 게레로, 따마울리빠스, 치아빠스, 오아하카, 할리스꼬, 나아릿의 농민과 일용직 노동자 25,000명이다. 민주혁명당을 지지하며 농민당 추진세력 중 하나였다. 전국커피조직연합(CNOC: Coordinadora Nacional de Organizaciones Cafetaleras)은 1989년에 25개 커피 생산조직들에 의해 커피가격 인하 상황에 대응하여 결성되었다. 오아하카, 치아빠스, 베라크루스, 게레로, 딸라스칼라, 소노라, 뿌에블라, 나아릿, 이달고, 사까떼카스에서 60,000명의 생산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PRD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농민연맹(UDC: Unión Campesina Democrática)은 1991년 PRD를 지지하는 농민조직들, 즉 CNC(전국농민연합), CCC(까르테나스농민조합), CCI(독립농민조합), CNPA(전국아얄라계획연맹) 등에 의해 PRD의 까르테나스(Cuauhtémoc Cárdenas) 대통령후보 지원세력으로서 결성되었다. 바하칼리포르니아, 아구아스칼리엔페스, 누에보레온, 멕시코시티, 미초아칸, 라라구나, 게레로, 오아하카를 포함한 27개 주에서 25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 연맹의 지지자들은 PRD 당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amírez 2003).

일부 일용직 노동자, 인종단체, 공유지소유자, 에히도농민들은 ‘토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였다. 이를 주도하는 대표적 농민조직은 전국아얄라계획연맹(CNPA: Coordinadora Nacional Plan de Ayala)¹⁶⁾이었다. 이 연맹은 1970년대

15) 전국농업노동자연맹(UNTA: 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Agrícolas)은 1978년 당시 커피 및 담배 경작농민들을 조직하기 위한 PST의 계획으로서 결성되었다. 베라크루스, 산루이스뽀또시, 유카탄, 캄빠체, 게레로에서 영향력이 강하며 이 주들을 포함한 22개 주에서 5만 명의 소속원들이 있다(Ramírez 2003).

16) CNPA는 1979년 뽀르띠요(José López Portillo)가 ‘더 이상의 토지분배는 없다’고 선

토지를 위한 투쟁의 결과로서 출현하여 정부의 토지분배 종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Carton de Grammont 1995, 124). 이를 위해 이 연맹은 지역의 독립농민단체들을 결집하여 새로운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소속된 단체들은 토지 회복과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인프라 확충과 토지반환 및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인종단체들, 토지반환·인프라 확충·신용 확대를 주장하는 에히도농민들,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생산자들 등 매우 다양했다(Serna 2004).

현재 멕시코의 농민운동 조직들은 대략 20개 정도이며 주로 4개 노선으로 분리되어 있다. 첫째는 전국농민연합(CNC)이다. 이 연합은 71년의 PRI 집권기 동안 정당 조합주의 구조의 한 부문이었고, 현재 그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농민단체 중 하나이다. 둘째는 상설농민대회(CAP)이다. 이 대회의 12개 소속단체 중 일부는 PRI와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립조직이다. 이 대회의 최고조직도 두 분파도 분리되어 있다. 한편에는 CAM(멕시코농민연합), CCI(독립농민조합), UGOCP(노동자·농민·민중 총연합), Alcano(북동지역농민연맹: Alianza Campesina del Noreste), UGOCM(멕시코노동자농민총연합: Unión General Obrera y Campesina de México) 등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는 CODUC(민주도농조직연합), CIOAC(독립농업노동자농민조합), CCC(까르테나스농민조합), UNTA(전국농업노동자연맹) 등이 있다. 이 조직들은 “El campo no aguanta más(농촌은 더 인내할 수 없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는 2003년 출현한 “El campo no aguanta más”이다. 이 운동은 위기에 빠진 멕시코 농촌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들을 하였다. 이 주장의 핵심에는 NAFTA 농축산업 조항의 ‘재협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운동은 농촌을 살리는 것이 멕시코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멕시코를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시민적·평화적 시위와 저항을 주도하고 있다. 넷째는 전국인디오대회(CNI: Congreso Nacional Indígena)이다. 이 대회는 1994년 1월 1일 차야파스 봉기를 일으켰던 사빠띠스따민족해방군(EZLN)이 참여하고 있다. 운동노선은 “El campo no aguanta más”와 유사하지만 이와는 별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멕시코의 인디오 세력을 대표한다(Ramírez 2003).

언한 이후 농민단체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연맹의 지도자들에 따르면, 12개 주 수만의 농민, 인디오, 학생, 소작농이 소속되어 있다(Ramírez 2003).

V. 결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방에 대응해서 멕시코 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농민운동의 유형은 보상적 농민운동, 저항적 농민운동, 변혁적 농민운동, 개혁적 농민운동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40-1970년 멕시코의 농민운동은 ‘저항적 농민운동’의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다. 저항적 농민운동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당시 ‘생산을 위한 투쟁’이 준공식적이고 간헐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970-1976년 멕시코의 농민운동은 변혁적 농민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멕시코 전역에서 무장투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멕시코 농민단체들도 무장투쟁을 통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조직화와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976-1982년 멕시코의 농민운동은 ‘개혁적 농민운동’의 성격으로 이행을 했다. 당시 농민단체들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자율적 지역조직을 결성하여 곡물의 유통을 더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이었다.

1982년 외채위기와 잇따른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이행은 멕시코 농업과 농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주의적 농민조직 체계를 버리고 UNORCA(전국지역농민자율조직연맹)과 같이 지역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농민연대조직이 모색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에히도농민과 소농 간의 법적·경제적 차이가 모호해지고 농축산업·임업·유통업·산업·서비스업까지도 포괄하는 탈중심화되고 탈부문화된 농민운동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El Barzón이다. 셋째, CCCOSSA(농업부문사회조합조직연합)와 같이 다부문·다정당을 포함하는 지역적 연대조직도 나타났다. 넷째, ‘새로운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대정부 대화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농민조직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AP(상설농민대회)도 등장했다. 다섯째, PRD의 약진에 힘입어 이 정당 산하 농민단체들이 증대되면서 농민운동에 대한 PRI의 독점적 지배도 종말을 고했다. 여섯째, CNPA(전국아알라계획연맹) 등과 같이 ‘토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농민단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멕시코 농민운동은 대략적으로 조합주의 경향(CNC), 친정부 신조합주의적 경향(CAP), NAFTA 재협상 경향(El campo no aguanta

más), 인디오 무장투쟁 경향(EZLN) 등 다양한 노선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 특징적인 점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 정치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제도적 틀 밖에 있는 새로운 사회집단들을 신조합주의 틀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Prud'homme 1995, 28-29). 신조합주의는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농민층 양극화로 '빈곤한 농민'들이 날로 증대되자 이들에 대한 정치적 포섭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농업개혁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주도세력이었던 농민의 힘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재생산 과정에서 농촌공동체의 적극적 역할을 소멸시켰다. 또한 농민의 심화되는 분화와 양극화는 농민운동의 주체, 방식, 목표에서의 다양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경희(2006), 「NAFTA 12년 후 '멕시코」, 황해문화, 가을호.
- 신창운(1989), 「70년대 이후 한국농민운동의 성격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6), 「한국 현대 농민운동의 전개 (1960-1990)」, <http://blog.naver.com/cadline/13298878>.
- 홍동식(1988),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 Appendini, Kirsten(1995), "La transformación de la vida económica del campo mexicano," in Jean-François Prud'homme(coord.), *El impacto social de las políticas de ajuste en el campo mexicano*, México: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Estudios Transnacionales, Plaza y Valdés Editores, pp.31-104.
- Bartra, Armando(1995), "Los nuevos campesinos", in Jean-François Prud'homme(coord.), *El impacto social de las políticas de ajuste en el campo mexicano*, México: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Estudios Transnacionales, Plaza y Valdés Editores, pp.169-219.
- Bartra, Roger(1975), "Compesinado y poder político en México", in *Caciquismo y poder político en el México rural*, México: Siglo XXI,

pp.5-30.

- Calva, José Luis(1998), “Política agrícola para el desarrollo agropecuario sostenido con equidad”, in Felipe Torres Torres(coord.), *El sector agropecuario mexicano: Después del colapso económico*, México: Plaza y Valdés Editores, pp.9-26.
- Carton de Grammont, Hubert(1995), “Nuevos actores y formas de representación social en el campo”, in Jean-François Prud’homme (coord.), *El impacto social de las políticas de ajuste en el campo mexicano*, México: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Estudios Transnacionales, Plaza y Valdés Editores, pp.105-167.
- De Janvry, Alain, Gustavo Gordillo, and Elisabeth Sadoulet(1997), *Mexico’s Second Agrarian Reform: Household and Community Responses, 1990-1994*,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 Fábregas Puig, Andrés(2001), *Chiapas, el futuro de una sociedad: Acercamiento histórico al conflicto de un pueblo*, Lleida: Editorial Milenio.
- Harvey, Neil,(1992) “La unión de uniones de Chiapas y los retos políticos del desarrollo de base”, in Julio Moguel, Carlota Botey y Luis Hernández(coords.), *Autonomía y nuevos sujetos sociales en el desarrollo rural*, México: Siglo XXI, CEHAM, pp.219-232.
- Hernández, Luis(1992), “La UNORCA: Doce tesis sobre el nuevo liderazgo campesino en México”, en Julio Moguel, Carlota Botey y Luis Hernández (coords.), *Autonomía y nuevos sujetos sociales en el desarrollo rural*, México: Siglo XXI, CEHAM, pp.55-77.
- Moguel, Julio(1992), “Crisis del capital y reorganización productiva en el medio rural”, in Julio Moguel, Carlota Botey y Luis Hernández(coords.), *Autonomía y nuevos sujetos sociales en el desarrollo rural*, México: Siglo XXI, CEHAM, pp.15-24.
- Mújica Vélez, Rubén(1998), “El ejido ¿inmovilidad o transformación?”, in Felipe Torres Torres(coord.), *El sector agropecuario mexicano: Después del colapso económico*, México: Plaza y Valdés Editores, pp.197-213.
- Prud’homme, Jean-François(1995), “Introducción: El contexto del ajuste”, in

- Jean-François Prud'homme(coord.), *El impacto social de las políticas de ajuste en el campo mexicano*, México: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Estudios Transnacionales, Plaza y Valdés Editores, pp.7-30.
- Ramírez Cueva, Jesús(2003), "Movimiento campesino: las razones de la furia, Rebelión, Movimientos sociales", *Revista de Web Rebelión*, <http://www.rebellion.org/sociales/cuevas110203.htm>.
- Rubio, Blanca(1987), *Resistencia campesina y explotación rural en México*, México: Ediciones Era.
- Rubio, Blanca(1998), "La vía campesina refundada: Hacia una nueva identidad e integración de los campesinos al orden agrícola mundial", in Felipe Torres Torres(coord.), *El sector agropecuario mexicano: Después del colapso económico*, México: Plaza y Valdés Editores, pp.215-228.
- San Pedro López, Patricia(1996), "Movimiento campesino en el nuevo (des)orden neoliberal", in Antonieta Barrón y José Manuel Hernández Trujillo (coords.), *La agricultura mexicana y la apertura comercial*, México: UNAM, Facultad de Economía, UAM-Azcapotzalco, pp.249-270.
- Serna Jiménez, Alfonso(2004), "El movimiento campesino en México: una identidad fragmentad", <http://www.pa.gob.mx/publica/pa070404.htm>.

논문투고일자 : 2006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자 : 200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12월 6일

강경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mail : khkang625@cheju.ac.kr

강수정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석사과정)

E-mail : gh-fl@hanmail.net